

# 왜 그런 사람이 되려는지 깊이 생각해 봤습니까

하늘이 유난히 맑긴 초여름, 재난·재해 위기관리 법학자 문현철 박사(47·초당대 군사학과 교수)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드님과 4살 먹은 따님을 데리고 멀리 전남 무안서 서울까지 어려운 걸음을 했다.

시골에서 중학교를 나와 전남대 사대부고를 다니던 문현철. 시골아이들이 도시에 오면 적응을 하기 어렵듯 예외는 아니었다. 게다가 어려서 부모님과 헤어진 아픔들이 겹쳐 공부 손에 잡히지 않아 이리저리 헤맸다. 그때 상담 선생이 법정 스님이 쓴 책 <산방한담>을 건넸다.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될 테니 읽어보라”고. “책을 하루밤새 다 읽기는 처음입니다. 저녁밥 먹고 읽기 시작해 가지고 고개를 드니까 동트더군요. 신비로운 체험이었어요. 스님 책 뒷면에 스님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을 보니 마치 아버지를 뵈는 느낌이었어요.” 문 교수는 그때 마치 우연히 발견한 아버지 유고를 하루밤에 정신없이 읽은 듯한 느낌이었다며, 새로운 세계를 접했다고 돌아본다. “책을 덮으면서 공부, 까짓것 별 것 아니나 싶었어요. 그때까지 저를 괴롭혔던 성문종합영어, 수학 정석이 갑자기 작아져 보이기 시작했어요.”

광주에 ‘비엔나’, ‘필하모니’를 비롯한 클래식 음악 감상실이 몇 개 있었다. 현철은 고1때부터 음악 감상실에 다녔는데, 베토벤 클래식 음악 감상실은 고2때인 1982년에 새로 문을 열었다. 밥보다 음악을 더 좋아했던 현철, 개업 날 바로 쫓아갔다. 현철은 교향곡, 바이올린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서 특히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브람스 곡을 좋아했다. 베토벤은 전국 어느 음악 감상실보다 오케스트라, 지휘자 곡들이 아주 많았다. 더구나 음향기가 다른 음악 감상실이 따라오기 어려울 만큼 좋아서 음질이 근본부터 달라,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 듯 했다.

현철은 <산방한담>을 읽은 지 딱 일주일 뒤 토요일 날 광주에 있는 음악 감상실 베토벤에 갔다. 그런데 법정 스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닌가. 첫눈에 스님을 단박 알아본 현철.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싶어 눈을 비비보았다. 정녕 법정 스님이었다. 그 순간 ‘이건 운명이다!’는 생각이 스쳤다. “스님은 성직자 특유 카리스마 넘치는 싸늘함이 감돌지 않습니까? 사람을 좀처럼 다정다감하게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 스님 연세가 지금 제 나이쯤 되셨을 때였어요. 사십대 후반. 스님에게로 뚝뚝뚝 걸어가었어요. 그리곤 ‘법정 스님이시죠?’ 여쭈어요. 스님은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불인성 하나는 타고 났거든요. 시골 사람들은 깊은 정(情)이나 신뢰가 있으면 툭툭 쓰잖아요. 스님이 품기는 싸늘함을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저건 본심이 아니라고. 앉으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스님 앞자리에 툭툭 앉아서 ‘저는 전남대 사대부고 2학년 1반 문현철인데요. 스님, 저는 스님 책을 하루밤새 다 읽었어요. 마치 벽장 속에 감춰져 있던 아버지 유고를 우연히 발견해 읽는 느낌이었어요’ 하고 운을 띄우는 ‘그런데 왜 스님이 되셨습니까? 스님 책 읽어 보니까, 국어선생님이 되셨



## 마치 우연히 발견한 아버지 유고를 하루밤새 정신없이 읽은 듯한 느낌

어도 좋았을 텐데 그렸더니 스님이 그제야 쓱 쳐다보면서 입가에 웃음기가 살짝 도셨어요.”

현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 모르게 고민거리들을 불뭉치며 쏟아냈다.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기준, 도시 애들과 시골 애들이 깊이와 넓이에서 너무 차이가 나서 화가 납니다. 스님,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들이 게을러서입니까? 아니면 제 게으름 때문입니까? 시골에서, 할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들판을 뛰어다니고, 직접 선거에서 반장을 놓친 적도 없고 총학생회장 소년조선일보 명예기자 보이스카우트 대장도 하고 학교 대표로 과학 실기시험에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시 고등학교를 와서 보니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니게 뭉개져 버렸습니다. 스님, 저는 군인도 하고 싶고 외교관도 하고 싶

고 의사도 하고 싶고 선생님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제 성적으로는 도저히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 기대가 크신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할머니 얘기를 꺼내니까 스님 표정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스님은 ‘사람은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더구나 꼭 무엇이 되어야겠다는 욕망이 삶을 이끈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다.’ 고 말씀을 하고는 차 시간이 됐으면서 일어나셨어요.”

그 뒤 고2때 학교에서 마라톤을 하다가 다리를 다친 현철. 무릎에 큰 수술을 받고 휴학을 하고, 서울로 올라가 명동성당에서 교리공부를 했다. 83년, 복학을 하고 나서 3월 13일 명동성당에서 영세를 받고 곧바로 광주에 내려가서 밤에 자취 집을 옮기다가 차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다. 심하게 구겨진 차체를 절단기로 자르려야 사람을 빼낼 만큼 커다란 사고였다. 현철은 의식을 잃고 죽을 언저리를 헤매다가 3주 만에 기적처럼 깨어나, 6월 중순 퇴원을 했다. “할머니는 제가 깨어나지 못하면 당신도 돌아가


## 하느님이 계시거나 하나? 어떻게 영세 받은 날 사고를 겪을 수 있나

시려고 청산가리까지 준비하셨대요. 깨어나서 생각을 해보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세례를 받은 날 그렇게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까? 하느님이 정말 계시다면 비껴가게 하든지, 사고 순간 잡아주든지 해야지 이럴 수 있느냐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얼굴이 성한 데가 없었다. 고교생이면 누구나 겪는 정체성문제, 진로문제와 더불어 일찍 곁을 떠난 부모님과 부모님대신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 생각이 뒤엉켜 힘든 시기에 사고마저 겪게 되니까, 진혼탕에 빠져 허우적대는 느낌이였다. 절망감이 불뭉치듯 밀려들었다. ‘하느님! 정말 당신은 계시기는 한 겁니까!’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시험격정도 밀쳐놓고, 퇴원하자마자 무작정 서울행 발기자에 몸을 실었다. 머릿속에 온통 기필코 김수환 추기경님을 만나 따져

보아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 명동성당에 도착한 현철. 나들이 가셨다는 추기경을 5시간이 넘도록 기다렸다. 그러나 나들이에서 돌아온 추기경은 먼저 잡힌 약속이 있어 한 시간을 더 기다린 끝에 어렵사리 만났다. 자리에 앉자마자 “추기경님!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하고 바로 들어왔다.

추기경께서는 부모님 얘기를 비롯한 살아온 이야기를 찬찬히 물어보았다. 걸어온 얘기와 찾아온 용건을 듣고 난 추기경은 “사람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데, 어렵고 아픈 경험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 처지를 잘 헤아리게 만들어 준다. 신앙 관점에서 보면 뒷날 너를 어딘가에 귀하게 쓰려고 주어진 시험이다. 지금 네가 이해할지 모르겠으나 세월이 흐르면 이해할 거다. 죽지 않고 살아남 일은 커다란 은총이다”고 하면서 현철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성모마리아와 예수가 그려진 카드에 글을 손수 써주었다. ‘늘 하느님께서 함께한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얻은 능력은 반드시 남을 위해 써야 한다’는 세 마디였다. “가까이서 추기경님을 뵈 소감은 ‘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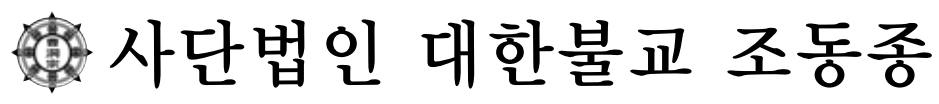


## (사)대한불교 조동종 연수교육 안내



대한불교 조동종은 포교방법과 전법이 뚜렷한 선종으로서  
 묵조선울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불교 대중화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종단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사찰에서는 포교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14차 연수교육 및  
 금강계단(수계 및 구족계)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전 종도님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종도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 시 :** 2555년 9월 28일 (음 9월 2일) ~ 9월 30일 (2박 3일)  
**장 소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392-10 다보사 수련원 043)833-7789  
**대 상 :** 전 종도 및 불자  
**준비물 :** 종단가사, 장삼, 바루, 세면도구  
**문 의 :**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 02)2091-0408



서울 노원구 상계 4동 산 154 수락산 도선사 (내)  
 Tel : 02)2091-0408 Fax : 02)952-0408 홈페이지 : 조동종.kr

분은 참 큰 산이시구나! 우리가 늘 오르내릴 수 있는 험하지 않은 산'이란 느낌이었어요. 아주 품이 너른. 참으로 고맙고 소중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철 없는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갑증이 가지지 않은 현철은 다음날 또 학교를 가지 않고 송광사 불일암으로 법정 스님을 찾았다. 뒷발을 때던 스님은 얼굴에 흉터도 생기고 몰라보게 야윈 모습에 '애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었는지 놀란 표정으로 "웬일이냐? 어디 다쳤느냐?"고 물었다. "평소에는 가도 별로 반기지 않으시는데 걱정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스님, 제가 영세 받은 날 교통사고로 죽다 살아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영세 받은 날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까? 김수환 추기경님도 만났는데, 후련한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스님! 대체 하느님이 계신 겁니까?' 하고는 따지듯이 여쭈었어요." 스님은 "네 생각이 잘못되었다. 천주님이 만화책에 나오는 마술쟁이인줄 아느냐. 천주님은 만화책에 나오는 마술쟁이가 아니다. 하느님은 큰 아픔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도록 힘을 주신다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성장을 이뤄야 한다. 이번 일이 주는 뜻이 무엇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천주님께 기도해봐라. 아주 오래도록 기도를 해야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현철은 갖 돌을 지났을 때 여동생이 태어나는 바람에 젓을 때자마자 할머니하고 살다보니 심리학에서 흔히 말하는 분리불안을 겪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조선대 국문과를 나와서 기자생활을 했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낸 사람은 그 능력을 반드시 남을 위해 써야

던 아버지를 여읜다. 게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머니는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 젊은 너는 내 길을 찾아 새 삶을 살라"며, 어머니 등을 모질게 밀어내는 바람에 어머니마저 개가를 한다. "제가 살면서 가장 슬프면서도, 안타까움이 뭐냐 하면, 제겐 어머니에 대한 추억은커녕 기억조차 별로 없어요. 운통 할머니 추억뿐이죠." 네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할머니 품에서 자랐던 법정 스님과 동병상련同病相憐. 그로 인해 현철은 늘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서운함, 소외감과 상실감.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죄송함이 얽혀서 공부에 몰두할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앞선 대 태뎀 격으로 교통사고가 났던 것.

"스님은 하느님을 꼭 천주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천주님께 기도드려라. 열심히 기도드리다보면 이 사고가 주는 깊은 뜻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그 말씀이 긍정을 인식하는 촉매제가 되었죠. 그때 스님이 마치 아버지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자주 저한테 툭툭 통명스런 말씀을 던지기도 하고, 막 뭐라고 화도 내곤 하셨죠. 그러면서 스님은 '할머니도 잘 계시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 말씀을 저는 자주 오라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어요. 할머니와 스님이 제게 물려준 공통점은 새로운 시작, 희망, 긍정이었어요. 그에 견주어 김수환 추기경님은 벽돌을 찍을 때 좌우로 고르는 시인이 되었어도 좋았을 법했다. 스님 책을 읽고 '우연히 발견한 아버지 유교를 읽는 느낌'이라



천주교 신자가 만든 성모마리아를 닮은 관음석상이 경내에 세워졌음은 법정 스님이 타종교에 개방적이라는 걸 웅변하듯 천주교 신자인 문교수와 법정 스님과의 교류도 그 질과 깊음을 헤아리게 한다. 스님이 창간한 김상사건만 인터넷을 위해 난생 처음 왔다는 문교수에게 관음석상의 내력을 설명해 주었다. 처음 왔기에 처음 봤을 것이다. 요리조리 뜯어보는 문교수 표정에는 어느덧 법정 스님의 흔적을 찾으려는 간절함도 얼핏 보이는 듯 하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란 꼭 지근거리에서 며칠을 두고 만나지 않더라도 '손 때 묻은 소나무 목침처럼' 묵직하고 향기 나는 것 같다.

든가 '성문영어나 수확정석이 갑자기 작아져 보였'다' 느니, 추기경님은 '벽돌을 찍을 때 좌우로 고르는 일처럼 제 삶을 고르게 해주셨다'는 표현은 마치 하이쿠를 읊는 기분이다.

문헌철 교수. 그때는 스님이 왜 그렇게 스스럼없이 대해주셨는지 그 까닭을 몰랐다.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스님 어릴 적 성장과정을 알고 나서야 왜 그러셨는지 알 수 있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스님 책 <오두막편지>에 '마른 장작처럼 가벼웠던 몸'이란 쪽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지가 않다'는. 스님이 제 처지와 같았던 거죠." 문 교수가 스님 가족사를 자세히 알게 된 때는 지난해 4월 28일 스님 49재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4월 27일, "동아일보에 정찬주 작가가 쓴 <소설 무소유> 소개말에 나온 스님 어머니와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다섯 시간을 읽었어요. 그전까지는 아주 깜깜했어요. 스님께서 목포상고하고 전남대 나오고 고향이 해남이시라는 사실밖에는. <소설 무소유>에 출가 과정이나 할머니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 책을 읽자마자 곧바로 문내면 선두리에 갔어요. 그 길을 계속 돌아다녔어요. 거기서 현장 스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내면 선두리에 있는 문내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하고. 충격이 컸어요. 스님 성장과정하고 제 성장과정이 오버랩되면서 스님이 왜 제게 각별히 마음을 주셨는지 그제가 깨달았어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태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량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화택(火宅)

맛을 만하면 화제가 일곤 한다. 불을 발견한 인류는 의식주에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불을 이용하여 화식을 하게 되었고 불을 이용하여 추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불은 인류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게도 했다. 불은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문화 형태를 바꾸어 놓기도 했다.

인도에서 불의 신을 agni 라고 한다. ag에서 나온 말이다. ag 는 '고분고분 움직인다' 단가 혹은 '바람불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참 실감이 나는 풀이 이기도 하다. 불을 피워보면 불기운은 똑바로 오르지 않고 하늘거리며 불길이 오른다. 농부가 바람 없는 날을 택하여 논두렁 받두렁을 태워도 불길만 닿으면 바람이 일어 생각 같이 불길이 가지 않는다. 마침내 실화(失火)로 뜻하지 않게 많은 재산과 인명을 잃기 까지 한다.

경전에서 중생세계를 불타는 집에 비유하여 가르치고 있다. 특히 <법화경> 제3 비유품에서 '삼계는 화택(火宅)이라 비유하여 중생을 구하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화택은 범어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adīp 는 동사로 '불타다'는 뜻이다. āgāra 혹은 agāra 는 '집'이나 '아파트'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위 단어를 합성하여 불타는 집, 화택(adīptāgāra)이 되었다.

석존은 제자 사리불에게 말했다. 부유한 장자(長者)가 있다. 그 장자의 집은 매우 낡아서 벽과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지고 기둥뿌리는 썩어오른 채 기울어져 위태롭게 생겼는데, 사방에서 불길이 일어나 차츰 집 전체로 번져가고 있었다. 나는 이 불타는 집에서 이미 나와서 안전한 곳에 있지만, 아이들은 불타는 집안에서 놀기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불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아이는 알았건만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불이 곧 몸에 닿아서 그 고통을 한 없이 받으려만, 걱정하는 마음도 없고, 집 밖으로 나오려는 생각도 없었다. 속이 탄 장자는 큰 소리로 집에 불이 났으니 '빨리 나오거라'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아이들은 조금도 변함없이 놀이에만 정신이 팔려, 나오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또 불이 어떤 것이고 집이란 어떤 것이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집은 이미 맹렬한 불길에 휩싸여 타고 있으니 저 지식들을 지금 구해내지 않으면 반드시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 교묘한 방편을 써서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리하여 장자는 아이들이 각기 좋아하는 것이 있으리라. 진귀한 것, 재미있는 것, 장난감 따위에는 반드시 마음이 끌리는 법임을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좋아하여 가지고 싶지만 좀체로 얻기 어려운 장난감이 여기 있다. 양이 끄는 수

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들이 대문 밖에 있으니 가지고 놀도록 하여라. 너희들이 불타는 이 집에서 빨리 나와서 너희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가지도록 하여라. 너희들이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겠노라." 그때 여러 자식은 장자가 말하는 진귀하고 좋아하는 장난감이 항상 마음속 어디인가에 비라고 있던 것과 꼭 들어맞았으므로 "빨리 가자"하고 서로 밀치며 앞을 다투어 그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왔다. 마침내 아이들은 주신다던 수레를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정자는 아무런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소가 끄는 큰 수레를 주었다.

여기서 장자는 두 말 할 나위 없이 석존이다. 아이들은 중생이다. 석존은 생노병사, 근심, 고뇌, 슬픔에 휘감겨 있는 중생을 위하여 이 세상에 몸을 나누신 것이다. 불타는 집은 사바세계이다. 사바세계는 고뇌, 원망과 원한에 의해 불타고 있으며 슬픔에 잠겨 불타고 있다.

<법화경>이 편찬된 시기는 수세기 경과했으나 인간의 괴로움은 아마 백백 번에서 줄어 들기는커녕 더욱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인간

휴식 없이 성과를 얻기란 어려운 일. 쾌락 좇으면 후회와 나약함만 남는다. 침묵으로 혼란스러운 정신 가다듬어야

이 무심코 저지른 환경오염 문제만 해도 그렇다. 물까지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끓여 먹거나 생수를 사서 마시는 세상이 되었다. 자업자득의 이치가 어김없이 통용되는 것이다. 아니, 먼 외국에서 물을 수입하여 마시는 나라가 되었으니 여기서 깊은 각성이 있어야 한다.

어느 위정자는 "국격을 높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국격을 높이기 위하여 꼭 무슨 기구가 신설 되어야 하는 것만도 아니라고 본다. 우선 위정자는 국민이 볼 때 눈살 찌푸려지지 않는 바른 언행이 요구 된다. 그런 품격 높은 모습을 본 국민은 대대적인 캠페인이 없어도 그냥 따르게 될 것이다. 부모가 출퇴근길에 무심코 버린 휴지와 담배꽂이를 학교에 간 자녀들이 길 거리에 나와 줍는 모습을 보면 '이건 아닌데...'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건물에 불이 붙어 날름거리는 화염은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압한다. 그러나 각자의 마음에 치성하고 있는 욕망의 불은 누가 끌 것인가. 마음의 불을 끄는 소방차를 중생은 언제까지 기다리지만 있을 것인가. 기다리지만 하다가 그의 삶은 이러구러 흘러 갈 것이다. 기다릴 것이 아니고 내 불은 내가 꺼야 하는 숙제를 누가나 안고 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순창 왕실 고추장



안녕하십니까? 4대 전통의 순맛을 이어받은 제조기능인 김경순입니다. 저희 왕실고추장은 순창의 자연과 4대 전통의 순맛, 그리고 재래식 전통방식이 어우러져 장인의 맛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왕실고추장은 여러분의 식탁에 만족과 기쁨을 드리기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대대 내려오는 장인의 명예와 왕실고추장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의 입맛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순 명인의 모듬 장아찌 1kg 33,000원	김경순 명인의 오이 장아찌 1kg 22,000원	김경순 명인의 배시 장아찌 1kg 44,000원	김경순 명인의 굴비 장아찌 1kg 140,000원
김경순 명인의 마늘장아찌 1kg 22,000원	김경순 명인의 도라지 장아찌 1kg 33,000원	김경순 명인의 김 장아찌 1kg 27,500원	김경순 명인의 참외 장아찌 1kg 27,500원
김경순 명인의 마늘 장아찌 1kg 27,500원	김경순 명인의 고들빼기 장아찌 1kg 27,500원	김경순 명인의 무 장아찌 1kg 27,500원	김경순 명인의 갯김 장아찌 1kg 27,500원

순창 전통왕실고추장 제조기능인 김경순 올림. 구입문의 : 왕실고추장 02)879-2007.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3-357023 (주)안앤스프링. 온라인 및 카드 구매가능 : www.checkbox.co.kr 에서 상품 검색 후 구매가능. 선물세트 홈페이지 검색 및 전화상담 환영